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지원하는 온기 확산 자녀라면!

제1769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3월 8일 (음력 1월 19일) 목요일

‘입원上京’ 해마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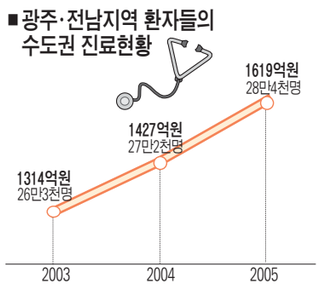
광주·전남 환자 진료비 수도권 유출 1,619억
체류비 포함땐 3천억 넘을듯…年 10%씩 늘어

고급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지역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선호는 지역 병원의 경영 압박은 물론, 지역 재원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높아 지역민들이 지역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동안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진료비는 1천6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03년 수도권 진료비 총액 1천314억원보다 23.2%나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 주민들의 수도권 진료비 총액은 대구·경북 주민들이 연간 쓴 1천641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인구(약 520만명)가 광주·전남지역(약 340만명)보다 180만명이나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진료현황



이와함께 수도권 진료시 환자 및 보호자의 체류비와 비보험 진료를 포함하면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진료비 유출액은 3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료계 추정이다.

2005년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환자는 28만4천872명. 2년 전인 2003년 26만3천438명에 비해 2년만에 8.1% 늘었다. 환자수 증가에 비해 진료비 유출액 증가율이 배 이상 높은 것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환자 등 중환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환자 수(2005년 기준)는 1만4천385명으로 수도권으로 간 전체 환자수의 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414억원에 달해 총진료비의 25.6%에 달했다.

암을 비롯한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병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지역의 병원들이 숙련도나 의료기기, 의료진 등 각 분야에서 지방병원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광주 북갑)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초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의료인력의 중앙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지방의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악의 몽골발 황사가 예고되는 가운데 고비 사막 남부 멀츠크엘스 지역의 황량한 사막에 석재와 철재로 만들어진 황사방지 펜스들이 설치돼 있다. 높이 20여m의 펜스는 황사에 의해 꼭대기까지 모래에 파묻혀 있거나 세찬 바람에 예리하게 깎여진 상태다. /연합뉴스

강·호수·샘 2,800곳 고갈…몽골發 ‘슈퍼황사’ 온다

황사의 주요 발원지로 꼽히는 몽골 고비사막이 어느 때보다 심한 온난화 및 건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 봄 최악의 ‘황사 테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잉흐둡신 몽골 기상청장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 기상청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겨울은 60년만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 전 국토의 50%에만 눈이 왔을 정도로 강수량도 아주 적었다. 따라서 올해는 황사가 심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펴낸 ‘황사피해대책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고비사막은 한반도를 엄습하는 황사중 24%의 발원지로 중국 네이멍구(內蒙古·37%)에 이어 한반도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몽골 황사 발원지의 온난화 및 건조화 현상은 수십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2003년 몽골 자연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국토에서 684개의 강, 760개의 호수, 1천484개의 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몽골의 사막화가 한반도 방향인 동남쪽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큰 고민거리다.

/연합뉴스

진도군 왜덕산 결연 이마바리시

명량해전 수장된 日 수군 장례 인연…후손들 문화교류 우정

정유재란(1597년) 당시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일본 수군들의 무덤을 만들어 준 진도 군민들의 인정〈본보 2006년 8월4일 1면〉이 400년을 넘어 한국과 일본 양국 후손들의 우정으로 맺어졌다.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 이마바리시는 최근 적군의 주검을 거둬준 진도군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진도군과의 결연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의사를 주일 한국대사관 서영진 히로시마 총영사에게 타진해왔다.

이에 따라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지난 6일 광주 그랜드호텔에서 총영사와 면담을 갖고, 이마바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7년간의 조일전쟁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투인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패한 2천500여명의 일본 수군은 진도 울돌목의 물살에 수장됐다. 진도 백성들은 해변에 떠밀려온 사체 100여구를 수습, 마을 언덕에 장사를 치러줘 원귀가 될 뻔한 왜군들의 넋을 달랬다.

‘일본 수군에 덕을 베풀었다’는 뜻으로,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에 있는 작은 언덕은 ‘왜덕산(倭德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왜덕산’ 미담은 지난 2003년 내동리 주민의 증언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정유재란 때 일본 수군을 지휘한 구루시마(來島) 장군 현창보존회 임원과 히로시마수도대 학생 등 20여명이 지난해 8월 ‘왜덕산’을 찾아 영혼들의 넋을 기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北-美 ‘평화협정’ 논의 합의

연락사무소 단계 생략, 수교 추진도

북한과 미국은 5~6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양국관계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를 열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6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힐 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같이 말하고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 메커니즘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밝히기 위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이틀간 8시간여에 걸친 북미간의 회담이 끝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과 매우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2·13 합의’에서 60일간 이행토록 규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북미 수교와 관련, 중간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을 뛰어넘어 곧바로 외교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6일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과정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작용했지만 북한이 이런 중간단계를 원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